

세계선문화타운 설립 가속화

추진위 출범식 갖고 향후 일정 밝혀

세계선문화타운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세계선문화타운추진위원회(이사장 정여는)는 12월 19일 부산 금정구에 사무실을 열고 현판식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판식과 출범식에 앞서 (사)세계선문화타운추진위원회는 12월 13일 감담회를 열고 세계선문화타운 추진현황, 사업 개요, 향후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계선문화타운추진위원회는 부산 범어사와 금정구 일대 100만평 부지에 참선수련시설과 전통문화체험시설, 세계선문화 체험관 등 선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2012년까지 금정구 일원을 선 문화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이 추진 중인 동해, 울진, 경

주, 부산 등의 동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에 세계선문화타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 지난 11월 채택이 확정 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민·관 협력 시범사업으로 진행, 하반기 중에는 국책사업선정 여부가

참선수련시설·체험관 등 2012년까지 테마파크 조성 유네스코에 프로그램 제시 세계에 적극 홍보할 계획

결정 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현재 예정부지 100만평 중 10만평을 확보한 상태이며 6500억 원을 사업비로 추정하고 개발추진법인을 개설, 예산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범어사를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공동목표인 추진위는 유네스코가 차기 10년 기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류 정신문화프로그램에 '선 로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세계선문화타운과 범어사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숙제가 많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마찰과 예산확보, 녹지보존대책 방안 등 세계선문화타운의 청사진 뒤에 가려진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다 선문화센터 부지 10만평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시와 범어사가 금정산 훼손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아 기자

“사랑의 옷 입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국JTS, 北에 내복 1만 벌 보내

따뜻한 내복 1만 벌이 북한 지역의 고아원과 양로원으로 전달되기 위해 12월 12일 부산항을 출발했다.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부산항 제3부두에서 북한 청진, 길주, 회령 등 북한지역 고아원과 양로원에 내복 1만 벌과 겨울나기 용품을, 함경북도 도인민병원에는 수술대, 인과수술현미경 등 의료기를 지원하는 선적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선적된 물품들은 개원지원, '북한 어린이에게 내복보내기' 거리모금액 등 총 1억8900만원 상당으로 전국 정토회 법당이 있는 지역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선적식에서는 두 달 동안 북한 어린이에게 내복보내기 캠페인'과 거리모금을 펼친 회원들의 소감을 나누며 북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불교거사협회

소림사로 사무실 이전

부산불교거사협회(회장 배호암)는 12월 12일 부산 소림사 법당에서 사무실 이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제 782회 정기법회를 겸해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초청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는 소림사 회주 정일 스님, 소림사 주지

혜전 스님, 배호암 회장, 부산불교거사협회 전직 회장을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배호암 회장은 “소림사와는 15년 동안 부산불교거사협회 운영이사회를 열어오며 각별한 인연이 있었는데 다시 사무실을 이곳으로 옮겨와 법회를 개최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부산불교의 뿌리를 내리는데 거물이 될 수 있도록 포교활동을 꾸준히 펼치려나”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불교신도회 김장 봉사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이사들과 회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김장담기에 나섰다.

부산불교신도회 복지환경분과(위원장 김영기) 주관으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복지환경분과위원장의 집에서 진행된 김장은 20명에 가까운 봉사자들이 매일 참여해 마무리됐다.

봉사자들의 정성으로 버무려진 300포기의 김장 김치는 부산불교신도회 이사들의 추천을 받은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됐다. 김치 5kg과 쌀 10kg 1포대를 부산 전역에 살고 있는 이웃에 전달하는데 필요한 차량봉사는 부산 개인택시봉사회(김기태)에서 힘을 보탤다. **천미희 기자**

마창불교연, 시민불교문화상 시상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진해사삼연합회(회장 윤성)는 12월 18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제16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학상에 오하룡 시인, 예술상에 조현제 수채화가, 행정상에 홍중주 향토사학자, 단체상에 마산MBC의 <문명예 새기다, 대장경> 제작팀(PD 안관수, 촬영 손무성이)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12년 ‘공든탑’ 무너뜨릴 수 없어...직원 독자적 발행 의지

한마음선원의 (주)현대불교신문사 해산 결의는 반드시 무효화 되어야 한다 (현대불교 폐간결정 배경과 직원들 입장 및 요구사항)

1면에서 계속

15일 현재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들과 단체등 많은 사부대중이 '현대불교' 폐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상당수 단체들과 불자들은 '현대불교' 폐간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 해왔다.

'현대불교' 직원들은 제사를 도려내는 자구노력과, 대립보다는 불자다운 모습으로 이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대불교신문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가 12월 14일 발표한 '현대불교 폐간 결정의 배경과 직원들의 입장' 전문이다.

특별취재팀

현대불교신문사 직원 일동은 한마음선원의 현대 불교 폐간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원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폐간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지난 12년 간 현대불교는 탄탄대로를 달려 왔습니다. 그 바탕에 한마음선원의 아낌없는 정성이 깔려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대불교 직원들도 한마음선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몇 개월 새 60여 명의 직원이 구조조정될 때에도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직원들은 회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신문사 측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지금, 한마음선원과 머리를 맞대고 신문사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년간의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부족했다면, 다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자발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구노력 의지를 이미 한마음선원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선원은 여전히 폐간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직원들의 자발적 자구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현 상황에 대한 불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모든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일방적 해산 결정...일방적 청산 통보

1994년 10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창간된 현대불교가 '폐간'이라는 어불성설의 위기앞에 놓였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스님과 1명의 재가자 감사로 구성된 (주)현대불교신문사 이사회가 12월 3일 법인의 해산, 즉 현대불교의 폐간을 결의한 것이다. 그리고 경영진은 12월 7일 오후 3시 사장실에서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해산 결의를 통보 했으며 3시 30분에는 노동조

합 임원진에게 같은 사항을 통고했다. 현대불교의 폐간 이유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은 직원 전원은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현대불교는 지난 12년간 불교계에 신행 풍토의 진작과 문화 학술의 발전 등 포괄적인 포교활동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오며 불교계와 사회의 공기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간'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종사자들의 생계문제를 넘어 불교계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을 허망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불교계의 인연은 물론 모든 문화 사업은 적자를 각오하고 진행되고 있다. 포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신문을 발행하고 각종 문화 사업을 전개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현대불교 역시 적자를 예상하고 감강했으며 12년간의 적자 역시 적자라는 개념을 넘어 포교와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투자'의 개념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므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폐간을 선언하기보다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운영 체계를 모색해 경영에서는 손을 떼더라도 현대불교의 존립은 유지시키는 것이 창간 당사자인 한마음선원의 도리일 것이다.

2. 자산 70억원 회수 위해 폐간 한다?

지금의 현대불교 재정 상황은 대행스님의 창간 정신을 일순간에 꺾을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단 3주를 남겨두고 폐간을 통보한 것은 적자운영과 상관없는 한마음 선원 내부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대행 큰스님의 건강 악화로 시주금이 대폭 줄었다'거나 '일부 지원에서 불사를 진행하며 현대불교에 투자한 부담이 너무 크다' 등의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 전 대표이사(사) 국제신문으로 자리를 옮기며 회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올 6월부터 고객부, 출판부, 부다피어 등의 부서가 정리되며 4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그러한 가운데 이사회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대불교의 자산과 지난 12년간의 경영수지를 매우 세부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자산 현황이 총자산 대비 -5.4억으로 결론 났다. 이사회는 이 결론을 들며 향후 매월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폐간을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현대불교의 가용 자산은 약 70억원이다. 이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현재의 회사 구조를 간직하고 그간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익 사업을 벌여 나간다면 적자폭을 대폭 줄여 창간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말의 대안도 없이 폐간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한마음선원이 어떤 내부적인 사유로 현대불교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폐간 결정을 내린 것이라

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내부적인 사유에 대한 정황은 다각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3. 폐간을 목적으로 둔 '경영실사' 믿음 수 있는가?

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의 경영실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경영실사는 경영해신을 위한 회사 상황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폐간을 목적으로 하고 '짜 맞추기' 식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경영실사는 실사의 기산 시점으로부터 현재의 상황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내놓은 '자산 부채 보고서'는 이 보고 이후의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직원의 퇴직금을 다 지급 했을 경우와 자산의 감가상각부분, 재고자산의 평가까지 포함해 작성됐다. 특히 국제신문에 대어금으로 지출된 약 20억원에 대해서는 100% 손실처리를 했다. 물론 '추후 회수를 하면 수입으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폐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보고서가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포기한 상태로 상정'하고 작성했다면 그 신뢰성은 전무할 뿐 아니라 폐간을 위한 의도적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광삼 사장이 퇴사한 이후 대표이사로 부임한 혜원 스님과 경영총괄본부장 정철 스님은 회사를 경영 했다고 하기 보다는 현상 유지와 폐간 절차 진행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혜원 스님은 회사와 관련된 대외 행사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낮 외에는 근무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 되는 가운데 진행된 실사는 결국 폐간을 위한 수순 밟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부실경영·경영관리 소홀의 책임은 누가 지나?

현대불교의 재정 위기는 최근 3년여 간 김광삼 전 대표이사과 현재의 경영총괄본부장 정철 스님의 무리한 투자와 자산유용으로부터 비롯됐다. 김 전 대표이사과 정철 스님은 2003년 이후 △인터넷 관련 사업(부다피어 포탈 사업 등을 위해 직원을 50명 이상 새로 충원 했으며 △케이비 방송 추진과 고가장비의 구매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투자만 하며 재정상태를 악화시켜 왔던 것이다. 정철 스님은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4년 이후 2006년 초까지 회사의 지출은 그 이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직원의 증원과 시설 장비에 대한 무리한 투자 때문이었다. 인터넷 사업을 통해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방송사업까지 추진하며 고가의 장비를 사들이는 등 낭비하기 어려운 경영이 계속되어 온 것이 회사에 재정 부담을 안겨준 주된 원인이다.

거기다 김 전 대표이사는 일간지로의 진출을 위해 회사의 기본 운영 범위를 넘어선 지출을 했고 이

를 위해 사육을 담보로 막대한 자금을 대출했다. 결국 2006년 2월 부산 국제신문 사장으로 취임하며 담보 대출한 20여 억 원을 국제신문에 투자 해 그 이자를 현대불교가 납부해 왔다.

대표이사과 총괄본부장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투자로 믿던 회사를 폐간이라는 극악처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은 내가 했으나 벌은 너희가 받아라'는 논리다. 경영을 악화시킨 장본인들에 대한 단죄도 없이, 경영진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이사회와 반성과 대안 모색도 없이 폐간만을 주장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5. 노조의 자진 해체와 '비대위' 구성

이사회는 또 노조가 있는 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현대불교신문사 노동조합은 2006년 7월 11일에 설립됐다. 일부 부서가 해산되고 직원들이 떠나가는 마당에 최소한의 생존권과 회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회사 하하는 직원들의 일부(총 42명 중 28명)가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는 김 전 대표이사의 재취임설이 떠도는 가운데 '실재한 경영인이 일간지 사장의 현직 상태에서 취임한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노조 설립을 서두른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측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노사협의최초차 운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 활동 없이 명맥만 지켜 왔다. 2006년 11월 20일 회사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 한마음 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참석했던 가운데 '화합제'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혜원 스님은 "노조가 있는 한 지원 할 수 없다. 노조를 해산해야 살 길이 있다"고 강력하게 노조 해산을 종용했다.

회사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조 역시 그 말씀을 거역할 뜻은 없었다. 11월 21일 기양에 잡혀 있던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열린 간부 대책회의에서 "어제 주지 스님의 강한 의사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면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협의회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에 따라 일부 간부가 노조 집행부에 그 뜻을 전하기로 하고 간부대책회의는 종료됐다.

그러나 총괄본부장은 노조 집행부의 문의에 대해 "그것은 전달할 사람의 개인 의사"라고 답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노사협의회의에서 총괄본부장은 주지 혜원 스님의 20일 노조 해산 종용 발언과 관련 "그것은 주지 스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피력했다. 때문에 노조의 해산을 반대한 소수의 노조원들은 노조를 당분간 더 유지하지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현 상황은 노조의 해산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해산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12월 7일로 공고했다. 그런데 7일 회사가 폐간 방침을 통보했고 총회는 11일로 연기됐으며 11일 낮 총회에서는 노조의 해산이 결의됐다. 노조는 당일로 종료규정에 해산을 신고했다. 이 같은 행보로 볼 때 노조는 회사에 위해 되는 행동을 할 생각조차

없었다. 오히려 해산을 방해하는 총괄본부장의 모호한 발언으로 해산의 시기가 늦춰졌고 그 사이에 이사회가 폐간을 결의했다. 총괄본부장의 모호한 발언이 폐간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된 것이란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12월 7일 회사의 일방적인 법인 해산과 폐간 통보 직후 현대불교의 전 직원은 노조활동의 중단을 전제로 직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경숙 편집국장)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향후 회사 경영진과 한마음선원의 이사회 주주 등을 상대로 폐간 저지와 추후 방향 결정 등을 하는 직원전체의 의사결정 기구로 출범했다.

12월 9일 오전 비대위 임원진 7명은 한마음선원을 방문 한마음 선원 주지 혜원 스님과의 면담을 요청 했으나 주지스님이 지방으로 출타했다는 답변을 듣고 호소문을 전달했다. 비대위가 작성한 호소문은 9일 전국의 한마음선원 지원과 (주)현대불교신문사 주주 및 이사 전원에게 발송했다. 12일에는 회사 측이 "오후 4시 회계법인에서 청산절차를 설명 한다"고 통보했으나 직원들은 이 설명회를 거부했다.

비대위 임원진은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회사의 대주주인 혜원 스님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혜원 스님은 "더 이상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으니 해산에 협조해 달라"는 입장만 고수할 뿐, 새로운 경영자 탐색과 그를 위한 시간 확보 등의 비대위의 요구를 거절했다.

6. 직원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

현대불교의 직원들은 폐간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다.

현대불교는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 공기가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그 가치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개신교의 경우 수많은 주간 신문과 일간지, 공중파 방송을 확보하고 치열한 선교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가족이나 포교력이 뒤틀어지고 있는 불교계 현실에서 비종교는 불교전문지를 없앤다는 것은 불교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범적' 행위다. 현대불교 직원은 현대불교를 살려내지 못하는 불교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는 각오로 현대불교의 유지를 위해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주장한다.

△현대불교 창간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호를 유지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경비절감을 통해 독자적으로라도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조치하라.

△신문의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 현재의 사무실과 집기 각종 자료 온라인 시스템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양도하라.

현대불교신문사 직원 일동